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제 목	[대선거획설문조사 결과] 유권자가 보고 싶은 선거보도는?
· 날 짜	2022년 1월 18일

시민에게 묻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보도 유권자가 보고 싶은 선거보도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보도가 수없이 쏟아진다. 선거 시기,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유익한 정치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유권자는 각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선보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대 대통령 선거보도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를 묻는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주관식) 온라인설문을 배포하여 시민에게 선거 시기에 유권자에게 필요한 보도와 퇴출되어야 하는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79명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중복체크 한 결과, 유권자에게 필요한 보도 111건, 퇴출되어야 하는 보도 142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 대선보도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 워드클라우드 이미지



<그림 2> 대선보도에서 퇴출해야 하는 보도 워드클라우드 이미지

<그림 1>, <그림 2>는 시민의 의견을 워드클라우드링 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닉네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보도의 열망이 잘 드러나는 닉네임이 많았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 ‘대선후보 정책 뉴스가 절실한 30대 워킹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 ‘다른 세상에서 30대를 보내고 싶은 서른 살 청년’, ‘노동정책이 궁금한 노동자’, ‘청년 일자리 늘어나길 원하는 취준생’, ‘표줄 데가 없어서 피곤한 시민’, ‘정책 토론 기다리는 시민’, ‘좋은 정치기사를 보고싶은 독자’ 등 유권자가 바라는 보도를 대변하는 의미있는 내용이었다.

대선보도, 유권자가 보고싶은 뉴스는?

유권자는 각 후보별 공약·정책 정보 절실

대선보도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뉴스로 시민들은 후보 간 공약·정책·비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보도를 가장 많이 주문하였다. 단발적으로 각 후보와 캠프에서 발표하는 정책·공약 보도가 아닌 각 후보들의 정치철학과 국정운영 비전, 당선 시 구체적으로 시행할 정책과 공약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후보 간 토론회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각종 의혹 전달 보도만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더욱 절실하다.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		건수
공약/정책 (61건)	후보비교 보도(토론/공약 대결 등)	27건
	정책 보도	17건
	분야별 공약 보도(환경/젠더/외보/안보/세대 등)	17건
검증 보도 (25건)	공약 실현가능성 검증 보도	10건
	후보검증보도(도덕성/국정운영능력/민중성 등)	8건
	기획보도(심층도, 시간 분량 제한 없이)	4건
	논란 팩트체크 보도	3건
비전/철학(10건)	국정운영 비전 및 정치 철학	10건
소수정당(8건)	소수정당보도	8건
유권자 중심 (5건)	유권자 중심보도(유권자에 필요한 정보, 민중 중심 보도, 공론장 역할 필요 등)	5건

<표 1> 대선보도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 시민응답 내용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내용이 정책보도와 분야별 공약보도였다.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가 보고싶은 보도 1순위로 정책보도가 꼽히지만, 실제 선거보도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책설명, 분석, 평가가 제대로 된 기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정책보도로 분류되더라도 후보나 캠프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단순설명 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는 부족하다. 응답 중 ‘정책설명을 넘어 언론이 나서서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정책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보고 싶다’ 등의 의견은 보다 심화된 정책보도를 원했다.

분야별로 보고 싶은 공약보도는 시민안전/국가재난시스템, 국가균형발전, 노동/고용, 외교/통일/안보, 환경, 삶의 질 개선(출생률, 양극화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보도에 관심이 높았으며, 지역 의제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보도를 보고 싶어했다.

시민들은 공약실현가능성, 후보자질 검증, 논란에 대한 검증 등 대선보도에서 언론이 검증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보물이나 후보캠프의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는 후보의 경력과 공약 전달은 실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약을 해설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주요 쟁점이나 시대적 과제와 관련한 공약 점검, 그것이 선거기간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들은 선거 시기 언론의 검증의 역할을 강조하는 응답들이었다.

대통령 후보의 국정운영의 비전과 정치철학에 대한 보도 또한 유권자에게 필요한 뉴스로 언급되었다.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검증할 수 있는 보도', '5년 임기동안의 청사진', '후보의 국정운영의 가치관과 향후 정책' 등을 알고 싶은 보도로 언급했으며 후보나 캠프가 이와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나서서 묻기를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었다.

거대양당 중심보도가 아닌 소수정당의 공약과 정책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과 유권자 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언론이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시민들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를 바랐다.

대선보도, 퇴출되어야 하는 뉴스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정보와

인신공격, 비방 등 정치혐오 부추기는 뉴스는 퇴출!

대선보도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뉴스로 시민들은 검증 없이 의혹 부풀리기에만 열중하는 '미검증 나열식 보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는 '인신공격, 비난, 막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와 후보와 선거캠프의 보도자료, 정치인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쓰는 '받아쓰기 보도'를 퇴출해야 하는 보도로 언급하였다. 특히 기자회견 보도에서 기자회견 내용만 받아쓰고 되묻지 않는 언론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내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선거보도에서 검증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상상털기식 '사생활 보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많았다. 취재원이 명확하지 않은 '카더라 보도'와 질 낮은 가십성 기사는 뉴스 자체에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퇴출해야 하는 보도		건수
미검증 나열보도 (51건)	의혹 미검증보도(검증없이 의혹만 부각)	16건
	비방 나열 보도(상대 후보 인식공격, 비난, 막말 등)	15건
	받아쓰기 보도(후보 발언, 캠프 보도자료, 정치인사 발언, 기자회견 등)	11건
	정책평가 및 검증 없는 보도	6건
	의혹 공방 보도	3건
검증영역 이탈 보도 (30건)	카더라 보도	15건
	사생활 보도(신상털기, 가족 가십성 보도)	15건
갈등/색깔 프레임 (25건)	갈등 프레임 보도(젠더, 지역, 세대 등)	13건
	색깔 프레임 보도(이념, 색깔론, 멸공 등)	6건
	정치판 갈등 보도(후보, 선대위 갈등 등)	5건
행보부각 보도(15건)	행보 보도(후보 일정, 이벤트 등)	11건
	이미지 강조 보도(공정/부정)	4건
편파보도(10건)	특정 정당/후보, 특정 이슈만 부각하는 보도	7건
	거대 양당 보도	3건
경마식 중계보도(8건)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 등	8건
기타	단발성 이슈몰이보도, 선정적 제목, 공방만 전달하는 토론 보도 등	각 1건 씩

<표 2> 대선보도에서 퇴출해야 하는 보도 시민응답 내용

세대, 젠더, 계급, 지역 등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조작하고 분열을 만드는 반상식적인 뉴스’, ‘성차별 등 시대착오적인 표 획득에 치우친 나쁜 의도의 뉴스’, ‘세대 갈등 부추기는 보도’, ‘국민간 분열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보도’, ‘반공 등 색깔 논리에 입각한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 ‘정치혐오 조장하는 시시콜콜한 정치 싸움 전달 보도’ 등을 이번 대선보도에 보고 싶지 않은 보도로 꼽았다.

또한 후보 행보 스케치와 이미지만 부각하는 보도도 퇴출 대상으로 보았다. ‘키워드만으로 부정/공정 이미지만 내세우는 보도’, ‘성의도 내용도 없이 같은 화면으로 이미지만 전달하는 뉴스’, ‘후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행보 기사’,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정이나 발언 전달 보도’ 등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값이 전혀 없는 보도라는 매서운 질책도 있었다.

특정 정당과 후보, 특정 이슈만을 부각하는 보도를 편파보도로 꼽았다. 또한 의미없는 (오차범위 내) 숫자를 나열하는 지지율 보도, 여론조사 보도 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

시민의 의견,

부산민언련 대선보도 모니터 기준으로 삼아

이번 설문조사는 대선기획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결과는 응답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거보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으로

가득했다. 부산민언련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20대 대통령 선거보도 모니터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시민들이 제시해준 의견을 기준 삼아 주간 모니터 보고서 발표(6회), 유권자가 원하는 좋은 보도 선정, 대선후보의 언론 정책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언론이 선거시기에 민주주의의 기능, 즉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치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와 선거캠프에 그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재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때 정치는 변화한다. 이번 대선보도에서 지역언론이 민주주의 기능에 충실하길 유권자들은 기대한다.

<끝>